

						II-A-2
제목	국문	가족구조의 특성이 의료서비스 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영문	A study on influence of family characteristic for the health service purchase decision making				
저자 및 소속	국문	이선희, 채유미, 최귀선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문	SunheeLee, YoomiChae, Kuisun Choi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Medical College of Ewha Womans University				
분야	보건관리 [의료이용]	발표자	채유미 [전공의]	발표형식	구연	
진행상황	연구중 → 완료예정시기 : 2001년 12월 1일					
<p>1. 목적</p> <p>의료서비스 구매과정 역시 일반 제품 구매과정과 마찬가지로 욕구인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의료이용등의 일반적 구매과정을 거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들 구매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가족구조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한다.</p> <p>2. 방법</p> <p>경기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995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가구주 연령별 분포에 따라 할당추출한 703 가구(2,531 가구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접조사를 시행하였다(조사기간 2001년 2월 19일 ~ 3월 11일).</p> <p>3. 결과</p> <p>1. 주방용품, 외래 및 치과 서비스 이용 의사결정은 상대적으로 아내의 영향력이 컸으며, 자동차, 주택구입, 입원서비스 이용 의사결정은 남편과 아내의 공동합의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 <p>2. 모든 의료서비스 이용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족구성원 중 아내가 정보탐색 및 최종의사결정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p> <p>3. 가족구조 특성별 의료서비스 이용 의사결정과정을 살펴본 결과,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정의 경우 입원, 외래서비스 모두 의료이용 제안 및 최종의료기관 선정에 대해서 환자본인이 주로 의사결정을 하는 반면, 입원서비스 이용시에는 주로 남편이 정보탐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의 경우에는 의료이용 의사결정 전 과정에 걸쳐 부인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부부와 자녀 이외의 가족구성원을 포함한 확대가족의 경우 남편이 입원서비스 이용시 정보탐색자로서 참여하고 있었으며, 그 외 과정에서는 서비스 종류와 무관하게 부인이 의사결정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p> <p>4. 고찰</p> <p>의료서비스 구매의사결정 과정에서 입원과 외래서비스 각각에 대해 단계별 의사결정자가 달랐으며 특히 가족구조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한 핵가족에서는 환자본인이 의료서비스 구매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반면 확대가족의 경우엔 주로 부인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종류별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집단들에 대한 홍보전략을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소재지역 가족구조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p>						